제 635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04년 3 월 14 일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1. 바른생활
2. 바른교회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선지서 강해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1장 4 - 16절)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담임)

요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가장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요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만 자고 있었으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배 밑에 있는 요나는 잠시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바로 그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제 길로 가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어 당신의 뜻대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는 한없이 내리막길로 치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뱃값은 지불했으나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무서운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수 22:20).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던 일로 7 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대상 21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교회와 민족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자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는 당신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결정에 제동을 거시기 위하여 배를 파손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내리막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었다가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Lord of Nature)은 태풍을 동원하시어 요나의 길을 막으셨고 이 일로 이방인 선원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선원들은 광풍을 만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을 모두 바다에 던지며 어떻게든 위험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만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비록 하나님을 몰라 경건하지는 않았지만 배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배가 파손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나서에 나오는 선원들을 세계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계는 경제문제, 평화문제, 질병문제, 천재지변의 문제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 풍랑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원들을 너무 질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풍랑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책임 회피를 하므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값이냐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 위에 이렇게 안타깝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가장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요나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잠만 자고 있었으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배 밑에 있는 요나는 잠시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바로 그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요나를 회유하시는 하나님

선원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누구의 죄인지를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선택할 권리는 인간에게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은 요나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질문 공세를 합니다(8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9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마침내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10절).

무리들은 태풍보다 요나의 배신행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항해를 하며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11절).

요나가 자신의 죄를 바르게 회개하였더라면 선원들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한 번 차라리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12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자처하는 요나의 강퍅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풍랑을 가라앉히려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는 잠잠해졌고 갑판 위에 사람들은 침묵으로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바다에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17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 토해내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16절).

구원을 받은 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처음에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배에 있던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배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어쩌면 요나서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터이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2차 KIMCHI 세미나 열린다

5월24일(월)-6월3일(목) 11일간,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와 국내 교회를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토록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는 주무부서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세워 KIMCHI 세미나와 목회자 세미를 통해 세계선교의 사명과 국내 교회의 갱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중 KIMCHI 세미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현지인 교역자들의 재훈련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함을 직시하여 올해까지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해오고 있다.

오는 5월24일(월) 개최되는 제12차 KIMCHI 세미나는 6월3일(목)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5개국(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을 초청하여 열리게 되며 이번에 초청되는 교역자들은 1개국에 6명씩 총30명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은혜 중에 시작하기 위하여 교회는 위원장으로 오정수 장로를, 지도목사로 이성득 목사를 세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수고와 봉사로 준비되어온 KIMCHI세미나가 올해도 은혜 중에 준비되어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가 자국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AM	5.24(월)	5.25(화)	5.26(수)	5.27(목)	5.28(금)	5.29(토)	5.30(주)	5.31(월)	6.1(화)	6.2(수)	6.3(목)
5:30		새 벽 기 도 회									
6:15		개 인 기 도 시 간									
7:00		아 침 식 사						기자회견			
10:00		강의1 이종윤	강의2 이광순	강의3 조종남	강의4 김상복	강의5 이원설	주일학교 참관	강의6 김의환	강의7 이승구	강의8 Kinsler	
10:50		휴 식									
11:10		토의	토의	토의	토의	토의	예배	토의	토의	토의	
12:00		점 심 식 사									
PM 1:00	도착	시내관광	신학교 방문	타교회방문	기독교 대학 방문	기도원 방문	주일학교 참관	목회자 세미나 참관	대한 성서 공회 방문	강의9 이종윤	출국
2:00										토의	
3:00	등록							시내관광		자유시간	
4:00											
5:00							찬양예배		나눔의 집		
6:00	리셉션	저 녁 식 사									
7:00											
	개회예배 이종윤	개인기도	기도후원자와의 만남	그룹토의	다락방모임 참석	자유시간	개인기도	국가별 선교전략 회의	그룹토의	폐회예배	
8:30											

2004 홍해작전

6월6일(주) - 6월19일(토)까지
14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국가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지금의 현실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이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에서 시작된 것임을 아는 우리는 이번 홍해작전을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와 교회 가정 앞에 놓인 너무 깊고 넓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건너기 불가능한 이 홍해는 바로 작은 나의 기도로만 건널 수 있다. 환경과 시간을 탓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의 은혜 누리도록 기도로 준비한다.

이번 2004 홍해작전은 6월6일(주)부터 19일(토)까지 14일간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이게 되며 참모장으로는 최종시 장로, 지도 목사로는 윤영국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주) 동양메디칼 본 교회에 제품기증

지난 3월12일(금)에 교회는 우리교회의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주) 동양메디칼(회장 서영수)의 뜻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10개 품목 4017점 총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의 기증을 받았다. 기증받은 상기 제품은 앞으로 교회에서 벌이는 선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케 될 것이다.

한국교회사 연구원 2004년 설교자로 본 교회 이종윤 목사 선정

한국교회사 연구원(원장 민경배)은 한국교회 10대 설교자를 선정하여 설교를 연구 분석하여 공개강좌 형식으로 발표하고 출판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 설교자로 본 교회 이종윤 목사를 선정하였다. 한국교회사 연구원은 앞으로 8개월간 3명의 전문직 교수가 이목사의 설교를 집중 연구하고 1명의 교수가 논찬을 하게 된다.

만민에게 전도

이방인의 전도 자로 부름 받은 자...

▶1기 태국 치앙마이에서 교회의 골조를 세우고 드린 예배

▶2기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드린 찬양 예배

▶3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오정수 장로
(제4기 단기선교팀 단장)

너머스까르?(안녕하세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자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올해로 단기선교가 4회를 맞이합니다. 태국의 치앙마이, 몽골의 울란바타르, 캄보디아의 프놈펜, 꼼뽕톰, 품스라에 지역 등지에서 약 25명 정도가 10일간씩 각각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올해는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약 4개월간의 훈련을 받고 8월 2일부터 열흘 동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단기선교는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닌 교회학교와 노방전도 및 축호전도, 그리고 의료봉사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한 형제 됨을 체험케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기독교인이 0.3%인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입니다. 해마다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공증전화와 시간 약속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정도인 나라입니다.

단기선교를 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선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동참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동참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세계를 품에 안고 방글라데시를 교구삼아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방글라데시로 달려갑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하심이라' (롬15:16)

천국 일꾼 양성

열린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성경대학에 초대합니다

윤찬오 장로(서울성경대학)

요즈음 불신자들도 이 세대를 가리켜 흔히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현실을 파악한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분별해보면 그 의미는 보다 경악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듯이 수많은 사이비 이단 기독교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이 공공연히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 믿는 성도들이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실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위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엡 6:17)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의 유일한 무기요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힘써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의 생활화와 말씀의 붙잡힘이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말씀에 의한 기도생활에 더욱 힘쓰고 매진하고자 거룩한 피 값으로 사신 몸 되신 서울교회는 성경대학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배움의 기회에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말씀 공부를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뵈옵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확실한 거룩한 일에 모두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 복된 삶, 승리의 개가를 힘차게 부릅시다.

▶ 2003년 한마음 · 한가족 축제 때 샬롬 경로대학 학생들의 무용 발표

교실, 노래교실이 준비되며 특별활동 후 침술 치료도 있습니다. 입학자격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로 이웃주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부대학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신용식 장로(주부대학)

▶ 주부대학 학생들의 꽃꽂이 작품

가치관이 혼동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부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생활윤리를 가지고 건전한 가정을 세우며 건강한 지역사회의 봉사하는 주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서울교회 열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부대학이 2004, 3, 30(화)부터 6, 1(화) 까지 (10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교회 602호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교양강좌로 개강됩니다.

주부에게 꼭 필요한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주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교양강좌 내용은 신앙과 가정생활, 여성의 사회참여, 음식과 건강, 바람직한 자녀교육, 아름다운 부부, 생활법률, 봄철 피부관리, 주부와 가정건강, 건강한 가정경제 등이며, 특별활동으로는 공예교실, 종이접기교실, 인터넷교실, 요리강좌 등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방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록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사무국이나 안내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학기 샬롬 경로 대학 개강을 준비하며

왕경래 장로(샬롬 경로대학)

서울교회는 급변하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노인들의 소외현상을 주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샬롬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8학기를 준비하여 지역주민과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샬롬경로대학에는 밝은 웃음이 있습니다. 율동이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가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실버 세대에 필요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남은 여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는 평생교육의 배움터요 인식처요 휴식처입니다.

4월1일(목)에 개강하여 6월3일(목)까지 10주간 계속되고 강의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입니다. 1교시-찬양 및 경건회, 2교시-교양강좌, 3교시-점심식사와 친교, 4교시- 특별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활동은 성경교실, 컴퓨터

나의 하나님

이제라도 주의 일을 ...

박태선 집사(5교구)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7남매 중 2남으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부터 동네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반대로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어느덧 목회자의 길을 접고 부자가 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나름대로는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벽촌에 있는 교회를 돕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주의 종이 되기를 포기한 자기 합리화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결혼도 하여 2남 2녀의 자녀를 두며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보증을 서고 이 일로 경제는 파탄이 났고 너무 신경을 써서 건강도 악화되어 담석까지 생겨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큰 힘을 주시어 죽음과 싸우게 하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후로도 중풍으로 두 번씩이나 쓰러졌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살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교회는 손님처럼 왔다 가는 신앙생활을 12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이종윤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자 이제는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지 않은 터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안내위원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늘 걱정이지만 다시금 건강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죽음의 계곡을 세 번씩이나 넘나들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많은 나이지만 80세에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저 역시 서울교회의 안내위원으로 써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이가 든 후에 한탄하지 말고 세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시어 하늘 나라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속상 받은 교사들의 소감

교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김찬진 권사(2교구)

작은 마을의 어린 소녀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갈래 머리 중학생의 어린 소녀가 유년 주일학생들의 교사가 되어 여객선을 타고 6시간이 소요되는 목포에서 실시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다녀와서 누가 만드셨나 저 푸른 언덕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푸른 언덕을... 부르면서 성경학교에서 봉사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함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몇 부분을 희생하면서도 주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근속 패를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30여년이 주님 앞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진실한 시간으로 계산될지 두렵고 행여 실족한 학생은 없었는지...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저를 스쳐간 학생들을 위하여 생각 날 때마다 사랑하는 그들 앞길에 주님의 말씀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최규초 집사(2교구)

20여 년 간 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명과 지혜와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상을 받고 보니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 3,4장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상기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고전 4:15) 말씀에 말없이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주님과 바울 그리고 디모데의 관계와 주님과 나와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의 관계를 생각하니 과연 복음으로 둔 후사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감사와 충성이 어떠한 관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도 교육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생애에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소망이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주시는 줄 믿기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사로 디모데처럼 순종하며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태 집사(12교구)

어린시절, 학교 앞에서 만난 전도사님의 아코디언 소리에 이끌려, 뒷동산에서 배운 성경이야기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소리가 어찌나 무서웠던지... 그래도 어려서 만난 주님이기에 의심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시절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주님을 만나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정말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일 분반공부 시간이 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반에 앉아, 자기반 학생이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두 눈을 빛내며 아이들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 아이가 문밖에 보일 때 얼굴에 번지는 기쁨의 미소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악한 세상 속에서 찾으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교사의 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과연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었는지, 혹은 상처를 주어 어린 영혼을 실족케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없이 절실하고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도 교회학교 교사인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유학생 학부모 특강 스케치

자녀 유학, 기도로 길을 찾으세요

▶ 강사 박성수 장로

입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해외 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달 27일 오후 7:30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는 명지고 교장으로 계시는 박성수 장로님을 모시고 '유학생 부모를 위한 특강'이 있었다.

장로님은 교육적인 여건이 한국, 중국, 일본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제도로서는 영국과 미국이 시스템 면에서 제일 앞서 있다고 했다. 예로 그들의 교육은 학생이 원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학 2-3학년이 되면 교수와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르친 것만 배우는 반면 그들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즐겁게 탐구하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그들 교육은 토론과 리포트 과제물 중심이며, 독서량 또한 엄청나서 고등학교를 졸업 할 무렵에 약 3,000~5,000 여권의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이다.

유학의 시기로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박사 과정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우리 교육은 석사까지 학문의 강도와 수준이 높지만 박사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드러나며, 유학 후 성공하는 것도 박사 과정을 공부 한 사람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조기 유학에 대한 관심인데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문제점이 보이기에 그 시기를 지내고 가는 게 좋다고 했다. 중학교 이후에 유학을 갈 경우에는 언어에는 본래의 뜻 외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최신판 [슬랭 사전]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학 한 나라에서 본인한테 닥칠 100 여개의 상황에 대비하여 5가지 잘 된 문장을 골라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것이다. 한편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기 유학을 보낼 경우 우리 정서상 친척집을 선호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나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를 봐서 필히 좋은 학교의 기숙사가 학생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적인 환경이 갖추어졌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아이들에게 일어날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늘 사랑과 관심 기도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되기를 당부했다.

유명희(편집부)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토) 제4차 장로교 신학회 논문발표회를 소집한다.
- 발령: 3교구 김한성 성도(이은아성도 부군), 수원지방법원 판사
- 개업: 기복도 가정숙 성도(12교구) (주)청정김치 강남, 성남 지사
  (031-731-3032)
  최대권 홍영희 성도(13교구) 교촌치킨 은마점 개업 508-3502
- **주간 식당봉사:** 뵈뵈여전도회(3월14일) 마리아여전도회(3월21일)
- **금주의 식사:** , 오형철 집사 (신동기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 tv)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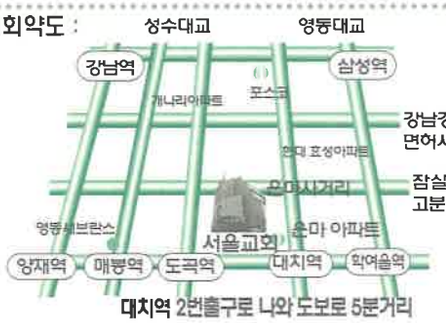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12차 킴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서울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